조선이공대·한국광기술원, 반도체 교육 활성화 협약

조선이공대학교와 한국광기술원이 최근 차세대 반도체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조선이공대 신산업특화사업단(단장 황영국)과한국광기술원광영상정보연구본부(본부장 이동길)는 최근 업무협약식을 열고 차세대 반도체 및 광영상정보 분야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및 광영상정보 분야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산학협력 가치창출 및 발전, 상호발전을 위해 정책 연계와 정보 제공, 사회적 책임실천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햇채원, 돌봄 이웃 위한 열무김치 60상자 기탁

김치·밑반찬 제조업체 '햇채원'(대표 김재웅)이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선종철)에게 돌봄 이웃을 위한 열무김치 3㎏ 60상자를 기탁했다. 〈사진〉

햇채원은 올해 4월에 이어 두 차례 기부를 했다. 햇채원은 지난 2021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충장동 지사협을 통해 열무김치를 후원하며 관내 영양결핍 우려가 있거나 불균형 상태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제철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김재웅 대표는 "충장동 지사협을 통해 김치를 기부할 때마다 저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여수해양경찰서 자원 활용 우수 기관 선정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사진)가 4일 여수시로부터 자원 활용 분야 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여수해경은 자원 순환 실천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전 직원이 모은 폐건전지 2만 2000 개를 여수시청에 전달하고 보상품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1200장을 받았다. 이후 1200장의 쓰레기봉투를 어민들에게 다시 배부, 해양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통해 해양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건전지 수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동강대, 청년 창업가 육성 '창업 챌린지 캠프' 성료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창업지원단(단장 박경우)은 최근 금호리조트화순에서 미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2023 창업동아리 창업 챌린지 캠프'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캠프에는 건축과, 유아교육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과, K-뷰티아트과 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1박2일간 창업 관련 교육을 받았다.

캠프 참가자들은 3~8명이 팀을 구성하고 그룹별 멘토링을 통해 아이템 선별, 사업계획서 작성, 추진계획 수립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이준영 씨, 광주세광학교에 발전기금 100만원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 이준영〈가운데〉씨가 최근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세광학교(교장 김선미)에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

이 씨는 '제9회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장애인 전용 길 안내 플랫폼'으로 아이디어 기획부문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받은 상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씨는 "세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며 그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길안내 플랫폼을 연구하게 됐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던 중 받게 된 상금인만큼 그분들을 위해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기부했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목포대 이상선 주무관 에너지관리기능장 시험 합격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최근 총무과 안전관리팀 이상선〈사진〉 주무관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74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기능자격 최고봉인 에너지관리기능장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기능장은 동일·유사 직무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이론 및 실무경력과 능력을 겸비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감독, 현장훈련 및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주무관은 "국립목포대학교가 최고의 안전한 캠퍼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안전지킴이'라는 신념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71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여기는 항저우 〈마라톤/양궁/배드민턴〉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육상/양궁/사이클(로드)/세팍타크로〉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고향이 보인다
9	30 KBS 뉴스			2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배드민턴/레슬링〉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육상/양궁/사이클(로드)/세팍타크로〉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SBS 항저우 아시안게 〈야구/양궁/배드민턴/여자핸드볼〉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핸드볼〉		00 MBC 뉴스 1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사이클(로드)〉	
2		00 여기는 항저우 〈야구/양궁/농구〉		
3			55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SBS 항저우 아시안게 〈야구/양궁/배드민턴/여자핸드볼〉
4	00 사사건건		55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농구/역도〉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스페셜			
6	00 6시 내고향			00 SBS 항저우 아시안게 〈야구/양궁/배드민턴/여자핸드볼〉
7	0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역도/레슬링〉	00 여기는 항저우 〈야구〉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슈퍼라운드/배드민턴/배구/역도/핸드볼/레슬링〉	
8	30 우당탕탕 패밀리			00 SBS 8 뉴스 15 KBC 8 뉴스 3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역도〉
9	00 KBS 뉴스 9			
10	0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농구/배드민턴〉			
11	00 KBS 뉴스라인W 30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0 홍김동전	00 MBC 뉴스데스크 40 라디오스타 스페셜	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2	30 KBS 중계석 〈국립오페라단 베르디〉	15 개는 훌륭하다(재)		30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허풍선이 미술쇼
07:1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07:30 엄마 까투리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8:00 딩동댕 유치원 스페셜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08:50 레인보우 버블젬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명의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5:15 EBS 평생학교 2교시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딩동댕 유치원 스페셜(재)
17:00 페파 피그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17:20 애코의 요수리동요
17:25 허풍선이 미술쇼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18:10 레인보우 버블젬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19:20 고향민국
19:50 숲이 그린 집
20:40 세계테마기행 〈풍문으로 들었소, 베트남 -낯설지만 매력 있는 베트남 중부〉
21:30 한국기행 〈집 밖 탈출기 4부 추억 속으로 달려갑니다〉
21:55 다큐멘터리K
22:50 귀하신 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5일(음 8월 21일 丙申)

☎ 010-9790-8237

子 36년생 객관적 실상에 주목하여야 한다. 48년생 행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60년생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다. 72년생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봉합되어 있는 상태이니 잘 살펴야겠다. 84년생 장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속도감도 중하다. 96년생 성심을 다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51

丑 37년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라. 49년생 상호 간의 심리 저변에 갈등하는 대국이로다. 61년생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차질을 빚게 된다. 73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옳다. 85년생 의롭게 처신한다면 두고두고 칭찬받으리라. 97년생 소탐대실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7, 72

寅 38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50년생 징후가 현실화될 수도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62년생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74년생 묵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86년생 내면의 실속은 없다. 98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 98, 50

卯 39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속되었을 때 효과가 커진다. 51년생 여태까지 접해 보지 못했던 것이 대두된다. 63년생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 75년생 발전적이고 희망찬 영역의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87년생 요령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99년생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7, 55

辰 40년생 무리수를 둔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2년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매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64년생 현태대로 추진한다면 대체로 순조롭겠다. 76년생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88년생 애로 사항이 생길 수다. 00년생 앞에 거칠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니라. 행운의 숫자 : 40, 68

巳 41년생 지금 확실히 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 53년생 금전적 가치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65년생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귀중한 기회를 갖는다. 77년생 습관적인 일상에 얽매여서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타격이 오리라. 89년생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01년생 꾸준히 실행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59

午 42년생 적절한 형태의 사전 예방이 최상이니라. 54년생 시종일관 계속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라. 66년생 중대한 고비에 와 있으니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78년생 연결 고리가 참으로 부실하니 관계의 설정과 활용에 유의하라. 90년생 진퇴양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인다. 02년생 서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2, 57

未 43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55년생 임시변통적인 처리는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67년생 행복의 마당에 들어서는 길목에 놓여 있다. 79년생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곳에 진귀함이 있도다. 91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수고로움만 더 할 뿐이다. 03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3, 70

申 44년생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을 안게 된다. 56년생 아무리 궁리해 봐도 별다른 방도가 없겠다. 68년생 합리적인 조절이 좋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80년생 적극성을 띤다면 훌륭한 성과가 기대된다. 92년생 원인 요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장을 받게 된다. 04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1, 78

酉 45년생 궁금해 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57년생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본인은 정작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69년생 애태우면서까지 함께할 이유가 없다. 81년생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언 하자. 93년생 숙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겠다. 05년생 참으로 귀함과 접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94

戌 34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46년생 알고 보면 굉장한 난제가 되리라. 58년생 격식이 필요한 때이므로 외형을 제대로 갖춰야겠다. 70년생 사리에 밝은 이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82년생 현재의 형세에 얽매인다면 대국을 살필 수 없느니라. 94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71

亥 35년생 상호 간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47년생 대비하는 이만이 손실을 최소화하리라. 59년생 상당히 생기겠지만 거의 없어지게 된다. 71년생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면 무난하리라. 83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서 설득력의 차이가 크다. 95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행운의 숫자 : 17, 91